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MC 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고객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심!

BNK 부산은행

제1416호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너무 억울” 호소 다음날 숨진 이선균…마약수사 종결 수순

경찰 “이씨 사망 안타깝다…다른 피의자는 계속 수사”



49일 만에 또 경찰에 출석한 이선균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이선균을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2개월 동안 경찰 수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48)씨는 하루 전까지도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수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씨 사망에 따라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 언론보도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10월 19일이다.

톱배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이씨 실명이 보도되진 않았으나 다음날 그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장을 통해 “이선균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히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9월부터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서울 강남 유동업소 실장 A(29·여)씨로부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확보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우리 집에 와서)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지난 10월 28일 처음 소환했다.

당시 이씨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고, 1주일 뒤 또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2차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이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이어갔고, 2차 조사 후 49일 만인 지난 23일 3번째 소환을 했다. 당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성탄절 이브인 24일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그가 A씨 등 여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진술도 받았다.

새벽에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그는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그는 변호인은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추가로 해 달라고 경찰에 먼저 요청했다. A씨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게 억울하다는 호소였다.

이씨 변호인은 당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 진술대로라면 국과수의 정밀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씨는 음성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A씨도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누구 진술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한 이씨는 하루 뒤인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을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망해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항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준석, 與탈당·창당 선언

“보름달 지고 초승달 차오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27

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을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으나,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친정’에 복귀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다. 12년 전 자신의 정치 입문일인 ‘12월 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오늘 내 선택은 내 개인에 대한 처우, 나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 상태에

/ 박현욱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고용노동부

한동훈 “검사 싫어하는 민주당, 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이재명 ‘검사사칭’ 혐의 직격…“국민의 도구인 검찰 악마화, 국민에 피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 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 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짚어 비판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해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취임 첫날인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언제 예방할지에 대해선 “예방할 분들이 많이 있다.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그 일(검사)을 2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에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빗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출근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프라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에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는) 당연히 비(非)정치인 위주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다. 정치인은 또 정치인의 역할이 있고, 정치를 바꾸는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서 비대위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 이른바 ‘789 세대교체론’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위론이나 세대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창호(바둑)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내 나이 때 헤비급 월피언을 했고, 히지록 감독은 60살 때 (영화) ‘싸이코’를 만들었다. 열정과 동료 시민에 봉사하겠다는 선의에 나아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불출마가 확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출미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해야 한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을 하면서 국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에 봉사하겠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개인의 바람보다는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말로만 ‘헌신하겠다, 헌신하자’고 하면 다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총선 시기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거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이낙연 최측근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는 나…李엔 보고안해”

남평오, 회견서 “대장동, 민주당의 악순환 굴레…이재명, 진실 앞 당당해져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인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남 전 민정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대장동 의혹 제보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 국무총리 재임 시절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현재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으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돋우고 있다.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안인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이명의 제보에 근거해 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

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제하의 기자수첩에서도 당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으로, 이 전 대표는 자신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이 대표를 향해 대장동 의혹 공세를 계속 펼쳐 있다. 박 기자는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보도 경위에 대해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다.

남 전 민정실장은 이날 “2021년 7월 초

순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 대장동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사실 관계를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와 수집 자료를 2주간 분석 한 결과 김만배 씨의 역할이 드러났다”며 “성균관대 출신 범조 인맥은 상상을 초월 했고 조성 원가 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관련 분석 내용이나 언론 제보 사실에 대해선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던 때라 역공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 판단,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고 했다. 제보 사실 공개 경위와 관련해선 “박 기자의 ‘이낙연 최측근이 제보했다’는 말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묻기에 ‘撒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입장하는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고 남 전 민정실장은 전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장동 공세를 했던 이 전 대표에 대선 패배 책임을 돌리는 점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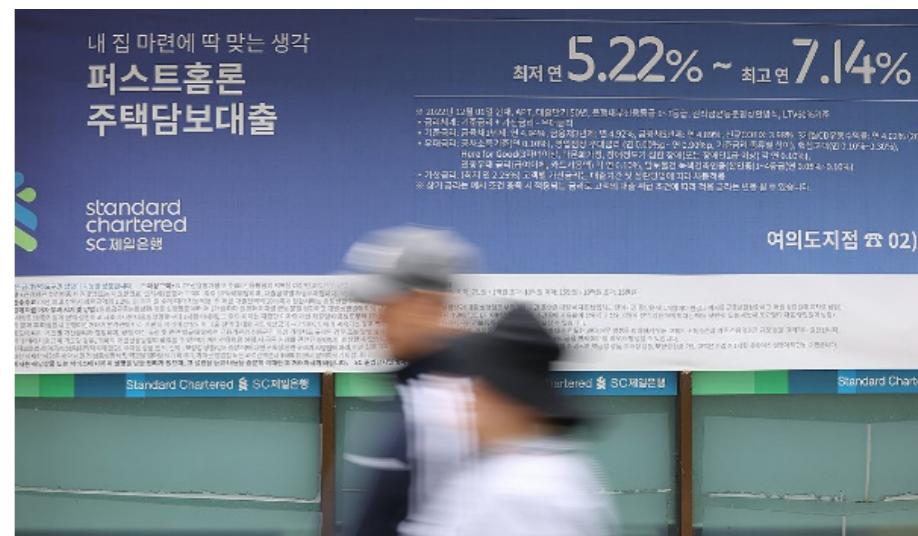
그는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악순환 굴레”라며 “일부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이 전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등은 ‘검찰이 이재명 제거를 위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내년 전체 대출에 ‘스트레스 DSR’ 시행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종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며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권은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천만원이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8천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이 제도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방침이다.

/ 흥명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김홍일 “방심위 업무에 방통위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방문진 청탁금지법 위반 건, 이해충돌 시 법대로 처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방심위 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MBC 대주 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표하고 방통위로 처분을 넘긴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며 “적법한 절차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질의에 답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의위원장 직을 늦게 내려놓은 데 대해서는 “(방통위 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연말이 되면 권의위에도 많은 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더라도 방통위가 정원 5명 중 2명밖에 없어 심의 및 의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는 “2인 체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꼭 바람직하나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담당 사건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김 후보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당시에는 전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대상은 주로 대주주 배임행위와 차명으로 대출받은 행위였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라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 씨는 알지만 2013년 이후 거의 통화한 일은 없고, 조우형 씨는 전혀 몰랐다가 2015년에 변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1989년도 위원장전임과 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기사 배열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기사 배열 등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신지호 기자



기재2차관 김윤상·여가차관 신영숙·총리비서실장 손영택

기재2차관 김윤상·여가차관 신영숙 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는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이 빠진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김윤상 신임 기재부 2차관에 대해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 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철실히 수행하고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배우자로 둔 신 차관은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시절 ‘부부 차관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명실상부 한 ‘부부 차관’이 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 촉진, 주거 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이며, 송 신임 해수부 차관은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부내 신망이 두터워 신임 장관을 보좌해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 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차관 인사는 대부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의 자리에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 남철희 기자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1월 3일 시작

“공통원서 미리 확인”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제출하면 된다.

가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된다.

전문대학은 내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27일 한국대학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다. 수험생들은 가나다 3개의

군에서 원하는 곳을 각각 선택해 원서를

입해야 한다.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는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로 여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시모집에서 작성했던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 수시모집 당시 작성하지 않은 수험생은 미리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통합회원에 가입하고 공통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활한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는지,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수험생은 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는 희망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컴퓨터에서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면 콜센터(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진학어플라이 ☎1544-7715)에 문의하면 된다.

/ 차현숙 기자

이국종 교수, 국군대전병원장 취임한다…명예해군 대령 진급

“장병들 건강 돋고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겠다”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성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뛰어넘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등을 살려낸 의료인이다.

그의 노력은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도입과 전국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마중물이 돼, 외상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군은 이 교수를 2015년 7월 명예해군 대위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명예해군 소령으로, 2018년 12월 명예해군 중령으로 임명하며 꾸준히 교류해왔



이국종 신임 국군대전병원장

다.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이나 해상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구조훈련 등 다양한 군 의무분야 훈련에 참여해 군 의료체계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작년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해왔다.

이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군대전병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부권 이남에서 1차 진료부터 신체검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의료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장병의 복지와 생명 수호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의 환자 후송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헬리콥터 등 우리나라가 가진 좋은 항공전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일니, 각계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 교수는 오는 28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아주대병원 교수직에서는 휴직했다. 국군대전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병원으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 장관은 이 교수에게 취임 축하선물로 조선시대 무관의 지휘봉 중 하나인 ‘등체’를 전달했다.

/ 문용성 기자

국회에 ‘김일성 초상액자’ 사진 전시…與태영호 지적에 교체키로

태 “北의 전형적 우상화 전략”…사무처 “지적 수용해 수정 또는 교체”



김일성 액자(빨간 동그라미) 걸린 해당 사진

의원연맹(IPU) 평양총회 당시 ‘만수대 의사당 남북대표단 간담회’ 장면으로, 사진 중앙 상단에 액자 속 김일성 얼굴이 보인다.

사무처는 이달 6일부터 과거 국회 활동상이 담긴 사진 60여점 전시했으며, 해당 사진은 국회 지하통로에 걸렸다.

이를 두고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사진 구도가 전형적인 북한 우상화 전략이고, 회담장에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는 1990년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무처는 태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존 사진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만간 김일성 액자 부분을 삭제해 다시 걸거나, 다른 사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 성동욱 기자

**‘대한민국 재도약’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쌓은 것은 123미터의 댐만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열망이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양강댐을 만들었고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한 반세기 소양강댐이 다시 희망을 채웁니다.

내 삶을 바꾼 물길 소양강댐 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1973년 10월 15일 준공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50 소양강댐
희망의 미래로!



野 4호 인재,盧·文정부 외교통 박선원…“尹정부, 무능외교 집약”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중책을 맡았던 박선원(60)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4호 영입 인재로 합류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행사를 열고 박 전 차장과 강청희(59)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각각 4·5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박 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82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반미 성향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위원장을 지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대다.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접두 사건 배후로 지목돼 수감생활도 했다.

이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위리

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며 대외 전략

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 전략을 이끌고 현 정부에서도 대외 전략의 중심에 선 김태호 국가안보

실 1차장과 한때 비견되기도 했다.

2006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

盧정부 대외전략 핵심실세…文정부 국정원 1차장 등 지내

5호 영입인재도 함께 발표…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담에 배석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웠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그를 ‘제갈량’, ‘꾀주머니’ 등으로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에서 발생한 자주파와 동맹파 충돌 때 자주파로 분류됐다.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안골모임’으로 불린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 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등 3인 모임에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진전을 지시했는데, 이 모임에 실무자로 유일하게 배석한 이가 박 전 차장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상하이 총영사를 거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 차장을 지냈다.

박 전 차장은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 불안의 집약”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

힌 실용적 외교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강 전 부회장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으로, 기파과목인 흉부외과를 전공해 2004년 개원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하던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진 의료영리화에 맞서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료로 가공·분배하는 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맡아 보건의료행정 역량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김희성 기자



북한,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보도…김정은 “더 공세적 맞대응”

정부,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 제재

ICBM 발사 대응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제재물

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

한인 8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

은 북한 정권의 수의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

총국장에 오른 리창호가 이번에 새로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

관으로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기·라자루스·안

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

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

와 기술 탈취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수기·라자루스·안다리엘 등 해킹조

직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

북제재위원회 전문가페널은 올해 4월 정

찰총국의 새 수장인 리창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

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로서 북한 조선광

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

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

이다. 또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

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고 정부는 설명했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정찰총국의 통제

를 받으며 북한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발표

는 이번이 14번째다. / 황민수 기자

공직자 재산, 통합서비스서 한번에 확인…가상자산도 포함

다음 달부터 여러 기관의 공직자 재산

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

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적으로 재산공개를 하다 보

니, 일반 국민은 해당 관보·공보를 일일

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관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성명과 기관명을 활용한 검

색 기능도 탑재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등록 의무자 약 29만명이 재산을 등

록하고, 그중 공개 대상자 5천800여명의

재산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 이영찬 기자

박민식, 전직 장관 험지출마론에 “행동으로 보여줄 때”

“영등포를 당과 가장 무겁게 이야기…韓 불출마로 與후보들 진퇴결정 빨라질 것”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7일 전 직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론’에 대해 “우리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해야겠다,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2주일 전부터 확실하게 (당에)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애초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하려 했지만, 최근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서울 영등포를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지역구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석 의원이다.



이임사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를 당시 요청했는지 묻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여러 지역 중 가장 무겁게 당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특정 지역구에 대한 의견을 당에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 “상당히 신선했다. 당을 위한 헌신적 결정이었다”며 “조스피드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준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공천, 출마와 관련한 본인의 진퇴 여부에 대한 결정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오창민 기자

공직사퇴시한 보름 앞두고 尹 측근

참모진들 총선행 합류

내년 4·10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

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

통령을 막판까지 보좌했던 측근 참모진도

하나둘 여권의 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

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를 출마를 위해 전날 사직했으며, 검

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시급

한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사임한다고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 전했다.

강명구 비서관은 2021년 6월 윤 대통

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부터 캠프

에 합류해 일정 기획을 총괄하며 신뢰를

쌓았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

하는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원모 비

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주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동

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서 환경부

백리스터 의혹을 수사했다가 좌천성 발

령을 받은 뒤 사직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네거티브 대응을 도왔고

당선 뒤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

증팀을 이끌었다.

이 비서관은 과거 검찰 내 ‘윤석열 라

인’ 막내였으며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

류했다. 이 비서관도 주 비서관과 함께 인

수위 인사검증팀의 주축으로 활동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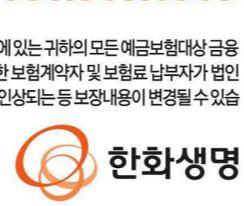
있다.

이들의 사임과 맞물려 후임 인선도 진

행 중이다. / 조규현 기자

한화생명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무배당)

080.365.6363



‘치매보험’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 상품의 예금(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보험금에 기자금으로 합하여 인당 최고 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 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신

검찰, '김용 재판 위증사건' 민주당 부대변인 참고인 조사

성준후 “김용 구속돼 관련자와 통화한 것…날짜 특정과 무관”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조직적인 ‘알리바이 위증’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준후(57) 민주당 부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성 부대변인을 상대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의 증언 이전에 관련자들과 소통하며 위증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10여년간 지근거리에 보좌한 ‘이너서클’로 꼽힌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게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니고 뭔가”라고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압수수색 규탄하는 성준후 예비후보

성 부대변인은 자신이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배경에 대해 “경기도에너지 센터장 신모씨가 지난해 12월에 나에게 (김씨의) 동선을 얘기했다고 하니 주위에 혹시 뭐가 있나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검찰이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날짜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하고는 다 끝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날짜를 특정한 것이

올해 5월인데 지난해 12월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때 위증교사 할 대상이라도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이게 선거 방해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성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씨 재판에서 증인 이씨가 김씨의 알리바이와 관련한 위증을 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씨, 신씨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고자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날에 적힌 ‘김용, 신○○’을 찍은 사진과 신씨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등 혐의 대부분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알리바이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우종 전 사장 등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송진영 기자

경하는 방식으로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 외에도 순정축협 조직 전반엔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9건, 과태료 부과 8건(총 1억5천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 2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율러 관계부처와 협력방안을 마련해 해당 조직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징계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노동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정욱 기자

노동부는 지난 9월 전북 순창 순정축협의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감독에서 드러난 조합장의 횡포는 보도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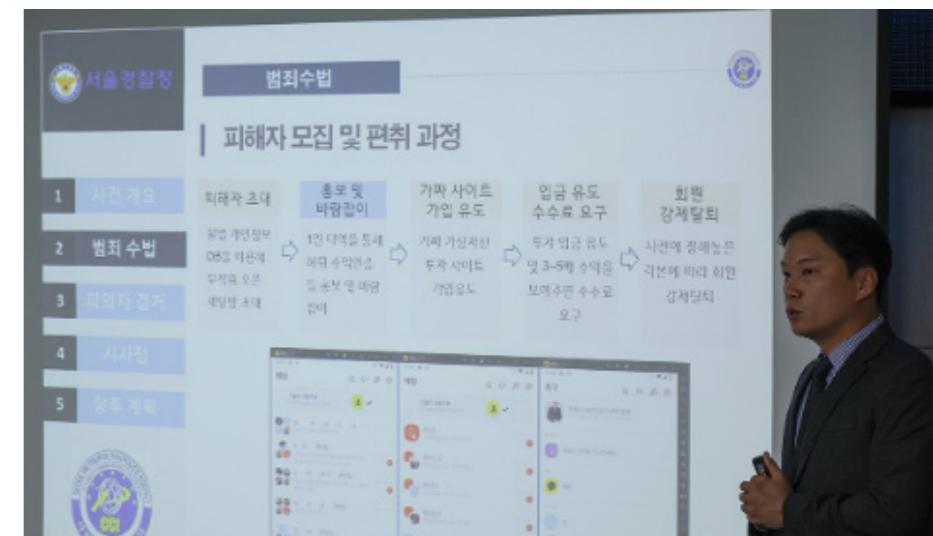
조합장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장례식장에서 세 차례 폭행했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

로 정리돼 있지 않다면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4~5차례 때렸다.

또 다수의 직원들에게 “나가 사표 안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들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사표를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 간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새X야”, “나가 내 등에 칼을 끊어”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도 확인됐다.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 600만원의 임금도 체불했고, 정해진 근무표를 사업장 여전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재테크 투자사기 연합 조직 49명 검거

“내년 마약범죄 13% 늘 듯” 리딩방 사기·사이버범죄도 기승”

내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활성화된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의 확대로 인해 마약범죄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4’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내년 마약범죄가 올해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범죄는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12.0%)한 것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1만331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였고 최초로 1만 건을 넘겼다. 올해 1~9월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1만2천1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천154건보다 약 48% 늘었다.

마약범죄의 세부 유형 중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9월 잠정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마약은 80%(1천923건→3천 473건), 향정은 47%(5천112건→7천485건), 대마는 3%(1천88건→1천122건) 각각 늘었다.

연구소는 “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의 확대로 기술 사용이 능숙한 젊은 층의 피해자가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해외에 관리서버가 있는 등 다양한 사유로 판매자 및 오남용자의 추적이 어려워 마약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한

국의 입국 관리, 세관 검사, 검역 시스템 등도 밀수범들이 마약을 국내로 쉽게 반입하는 데 일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마약범죄의 증가세를 낮추려면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전담 수사기구의 설립, 마약 구매가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단속을 통한 엄격한 법 집행, 출입국사무소와 수사기관 간 다각적 협업 노력 등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내년에는 고수익의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유혹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인 투자리딩방(불법 유사투자문업체) 사기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이 올해 7월까지 집계한 리딩방 투자 피해자는 9천360명, 피해 금액은 2천 4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할 경우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등의 특징을 보이는 피싱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더욱 고도화·조직화하고 있어 내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내년에 온라인 거래 및 게임 사기, 메신저피싱·몸캠파싱 등을 포함한 사이버범죄 역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이버범죄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해 1~9월 발생 건수는 약 18만2천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 최용범 기자

노래방서 술병 깨며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횡포 사실로

노동부 특별감독서 위법사항 18건 적발…2억원 임금체불도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순정축협에 대한 노동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각종 횡포를 비롯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전북 순창 순정축협의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감독에서 드러난 조합장의 횡포는 보도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조합장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장례식장에서 세 차례 폭행했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

로 정리돼 있지 않다면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4~5차례 때렸다.

또 다수의 직원들에게 “나가 사표 안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들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사표를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 간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새X야”, “나가 내 등에 칼을 끊어”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도 확인됐다.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 600만원의 임금도 체불했고, 정해진 근무표를 사업장 여전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

경하는 방식으로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 외에도 순정축협 조직 전반엔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9건, 과태료 부과 8건(총 1억5천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 2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율러 관계부처와 협력방안을 마련해 해당 조직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징계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노동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

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정욱 기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및 가입내역 조회, 연금 청구,

전자증명서 발급 등 국민연금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예상연금액 및 가입내역 조회, 연금 청구,

전자증명서 발급 등 국민연금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NPS 국민연금공단



앱 설치 바로가기

금융으로 세상을 . 이롭게



“신한 연금라운지 노원, 일산 오픈”

신한 연금라운지가 열린다 인생 2막이 더 즐거워진다



은퇴 자산뿐 아니라
건강한 은퇴 라이프까지
신한은행 연금라운지의
고객 맞춤형 1:1 연금 솔루션으로
걱정 없는 인생 2막을 즐기세요

[신한 연금라운지]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신한 연금라운지 노원

- ▶ 통합 연금 컨설팅: 연금통합관리 및 은퇴자산 설계
- ▶ 현금흐름 진단: 매월 입·출금 분석을 통한 은퇴 후 소득·지출 진단
- ▶ 전문가 상담: 세무, 부동산 등 전문가 연계 상담
- ▶ 평생소득 아카데미: 은퇴 전·후 필수 금융상식 및 주택연금 심화상담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3층 02-6224-5499

주엽역 5번출구 신한은행 4층 031-812-3655

신한 연금라운지 일산

신한SOL 연금라운지 * 모바일 플랫폼

- ▶ 신한은행 연금 자산 통합 관리 및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 ▶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 ▶ 연금고객님 전용 상품 / 서비스 안내
- ▶ 간편한 세금 조회 서비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종합소득세 등)



신한 SOL 뱅크

* 위 이미지는 일러스트로 표현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835-1(2023.12.15~2024.12.3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행 신한은행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규정 마련…4가지 '예외 조항'도 명시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 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김범석 쿠팡 의장 (CG)

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

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 이 4가지 조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 김민재 기자



춘천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도입…일손부족 해결

육동한 시장, 프놈펜 방문 험수어 장관과 업무 협약

강원 춘천시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번기 농업·농촌지역 일손 부족 문제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시를 방문 중인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오후 노동직업훈련부 청사에서 험수어(Heng Sour) 장관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춘천시는 캄보디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게 된다.

앞서 춘천시는 2018년부터 필리핀 바탕가스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마을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춘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2018년 107명, 2019년 103명, 2022년 209명, 2023년 356명, 2024년 426

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곳의 국가에서만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성실 근로 등에 한계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는 지역체는 캄보디아 칸탈주(州)와 캄퐁스페우주(州)다.

근로자는 25세부터 50세까지 성인으로, 출입국 제한이 없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다.

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농촌 인력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제도"라며 "해외 자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우수한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도입,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 시장은 지난 26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이틀간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오후(현지시각) 베트남으로 이동, 달랏시 창설 130주년 기념식과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한 뒤 31일 귀국한다.

/ 조영석 기자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109곳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28일 10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한 환자가 겨울 등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하거나 의원의 질환 관리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포인트

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1월 시작해 그동안 10개 시군구에서 실시됐다.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가 참여하는 관리형으로 나뉜다.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

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서비스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참여 의원의 의사, 간호사와 영양사 등에 대한 기본 교육(1회)과 보수교육(매년)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새로 대상 지역이 되는 시군구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정미 기자

유인촌 "저작권 선제 대응 절실"…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



문화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체계 등 쟁점을 논의한다.

유 장관은 보상체계와 관련해 "AI가 창작물을 만들려면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안무나 건축 등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음악 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도록 해 성명 표시권을 보호하고, 안무가들의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예비 창작자와 프리랜서 등이 주 참여인 공공분야 창작공모전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 양희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K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해외 불법 유통이 늘어났고, AI 신기술 발전은 창작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며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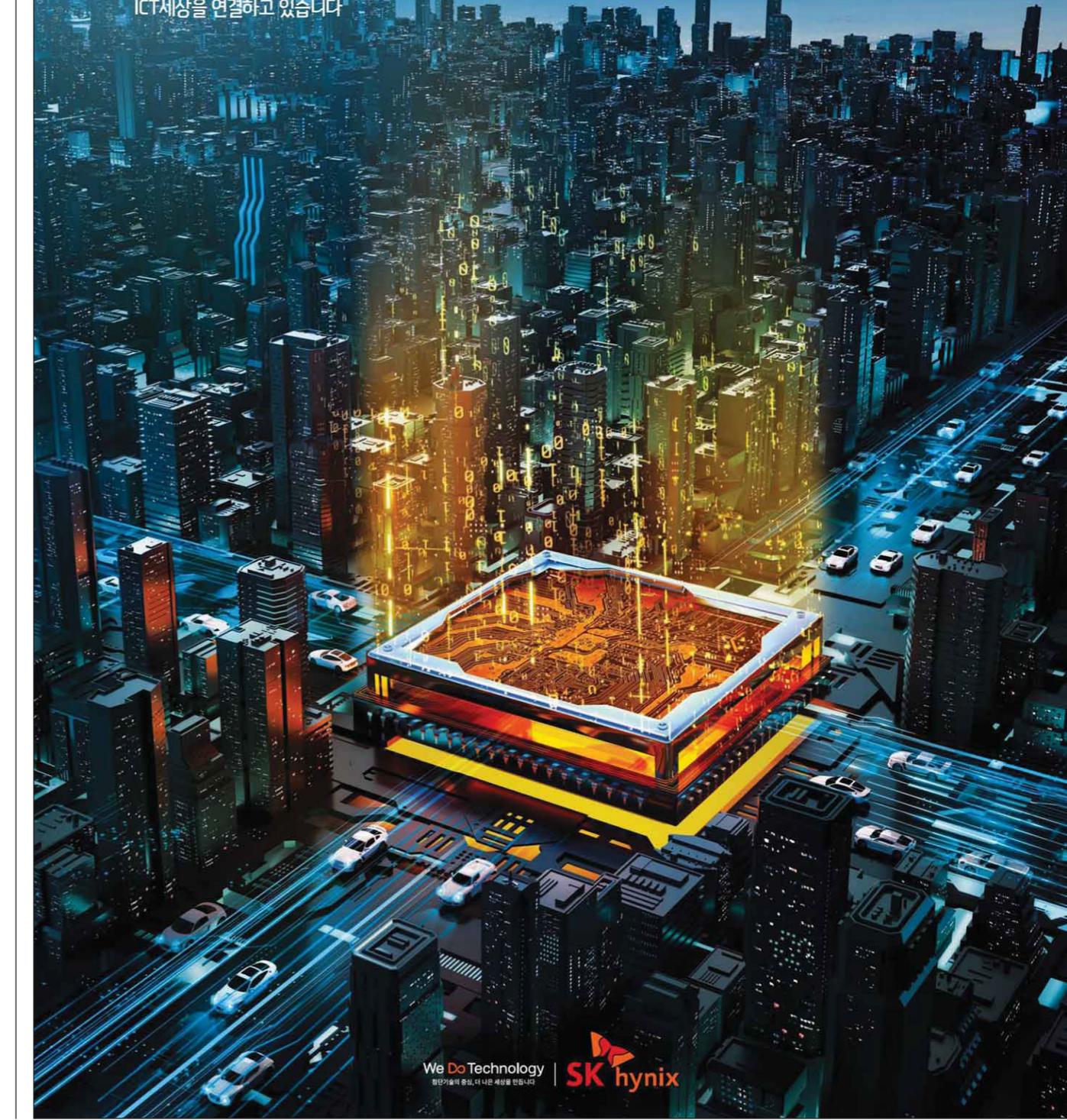
이어 "2024년에 분명 저작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저작권법 자체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셈이니 15년, 20년 뒤 어떻게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2022~2027년 저작권 산업 규모를 244조8천억원에서 430조원으로, 저작권 수출 규모를 155억달러(약 20조900억원)에서 250억달러(약 32조4천억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미래의 길을 잊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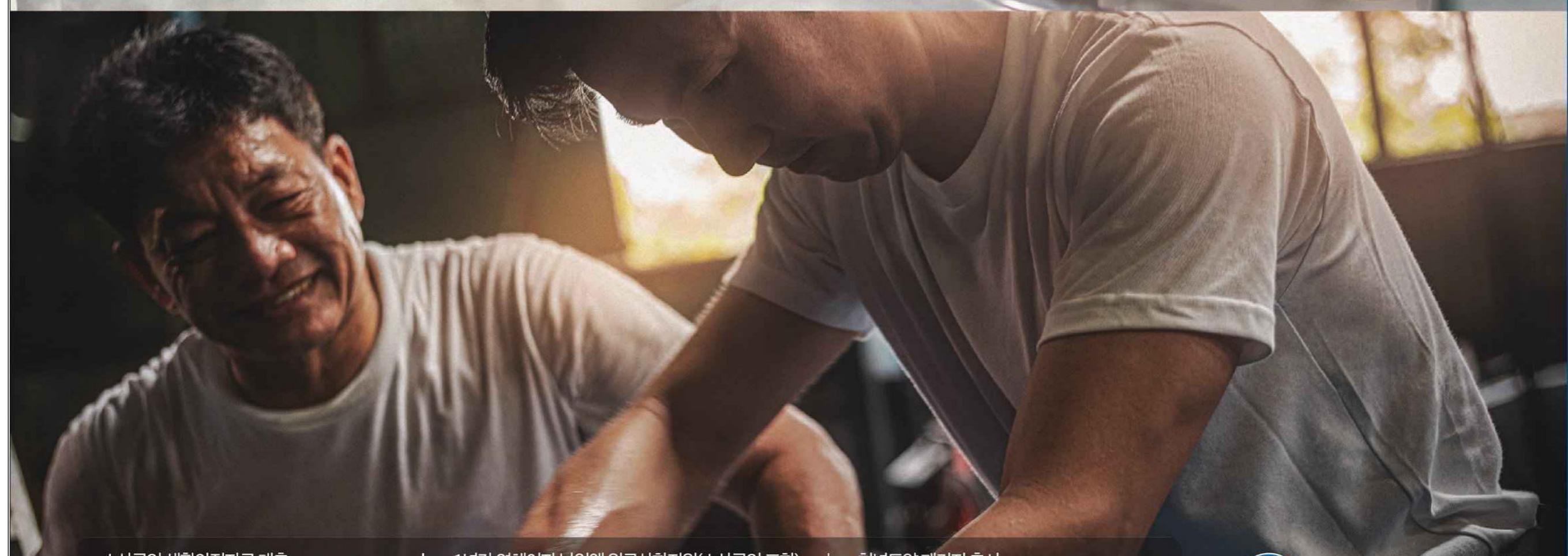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금리 최대 1%p 감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1년간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지원(소상공인 포함)
성실상환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원금 1% 감면
시니어/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 특화점포 신설청년도약 패키지 출시
기계대출 전 상품 금리 인하
노령층 전 채널(비대면, 창구, ATM)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지옥철’ 숨통 트이니…9호선 30일부터 전동차 30칸 늘린다

혼잡 완화 위해 우선 5편성 투입…내년 초까지 48칸 증차 추진

서울시는 토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지하철 9호선에 신규 전동차 6량 5편성을 투입해 30칸을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내년 초까지 9호선에 신규 전동차를 18칸(3편성) 추가 투입해 총 48칸(8편성)으로 증차해 혼잡도(수송 정원 대비 승차 인원)를 더욱 완화한다. 이를 통해 출근 첨두시간대 급행열차 최고혼잡도를 17%P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출근길 9호선을 타본 뒤 “혼잡률이 가장 높은 여의도역에서 동작역까지 탑승했는데 앞뒤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다”며 과밀 해소를 위한 신규 전동차 투입을 올해 연말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근길 9호선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시는 이번 증차로 최고혼잡도가 일반 열차는 128%에서 117%로, 급행열차는 199%에서 182%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운행 간격은 현재 3분 40

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9호선 운영기관과 협조해 지난 8일부터 행선 안내 게시기와 9호선 홈페이지, 역사 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천24억원 중 25%인 256억원(내년 6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하는 결실을 본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규 전동차 투입으로 9호선의 혼잡도가 완화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가 3편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다.

세종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노선도 세종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노선도 [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 도로는 공동캠퍼스와 테크밸리 등 세종시 산학연 클러스터와 오송 첨단산업단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연결하는 C자형 첨단 산업벨트의 중추 도로 역할도 할 것”이라며 “2026년 전후로 전체 구간이 완공 개통되면 시민들이 순환형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경 기자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센터 인근) 이레교회 표지판 뒤에 놓았으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찾아와 8천만 원 놓고 사라져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다.

올해로 24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선행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노송동주민센터에 한 중년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센터 인근) 이레교회 표지판 뒤에 놓았으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현금과 돼지저금통, 편지가 든 종이상자를 발견했다.

확인 결과 성금은 5만원권 지폐와 동전을 합해 총 8천6만3천980원이었다.

편지에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로써 천사의 선행은 올해까지 24년 째, 25차례에 걸쳐 이어지게 됐다.

누적 성금액은 9억6천479만7천670원

에 달한다.

전주시는 천사의 뜻에 따라 성금을 노송동 지역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쓸 예정이다.

이 천사는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8만4천원을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놓고 가면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린다.

천사의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송동 주민과 학생에게 연탄, 쌀, 장학금으로 전달됐고 주민들은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천사축제와 다양한 재능기부 행사를 열고 있다.

송해인 노송동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사랑과 감동을 선사한 얼굴 없는 천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가 바란 대로 나눔의 선순환이 이뤄져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진성훈 기자

세종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28일 개통…“교통정체 완화 기대”

세종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오는 28일 개통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7일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금빛노을교에서 김형렬 행복청장과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식을 했다. 이 도로는 28일 오전 10시 전면 개통된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세종시 신도

시 내 2개의 고리 모양 도로체계 중 바깥에 있는 도로로,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전체(총연장 31km·왕복 6차로) 도로 중 6.6km다. 특히 5생활권 구간은 3.6km가 지하차도와 터널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하고 안전한 주행과 시야 확보를 위해 4곳에 자연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국내 최초로 곡면 벽체도 설치했다. 함께 개통하는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

홍준표 “내년 선거 한국정치 사상 가장 극렬한 진영대결 될 것”

“제3지대 정당 주목받지 못할 것…지방대 경쟁력 없는 곳은 문 닫아야”



송년 기자간담회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내년 선거는 한국정치사상 가장 극렬한 진영대결이 기시작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제3지대 정당들이 주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 10%) 대를 유지하면 비례대표 7~8석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때 (여당) 연합세력의 파트너가 될 생각으로 뛴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홍 시장은 차기 총선에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아무리 대구지만 좀 국회의원 같은 사람 뽑아서 선출해달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현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도 불투명한 사람, 대구시를 망쳐놓은 사람, 국회의원을 하는지 국회

의원 노릇을 하는지 모를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대구 시가 제대로 되겠나”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 지면식물정권이 된다”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옛날에는 대통령 권력이 국회를 압도했는데 지금은 비등해졌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면 아마 정책 추진 동력이 거의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있다”면서 “반드시 이어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여여간 극한의 대립 상황에서 룰 모델로 삼을 만한 정치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타협이 안되고 극단적 대립을 할 때 김종필 총재 같은 분이 있었으면 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런 큰 인물이 없으니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정책국을 신설할 계획이라 는 점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대가 살아나려면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통폐합해서 1천억원을 받아본들 2~3년 내에 경직성 경비로 다 소비되고 대학 몰락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대학도 폐교할 곳은 폐교해야 하고 경쟁력 사라진 대학, 실력 안되는 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지방대가 살아나려면 대학 수준 높여야 한다.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홍 시장은 올해 최대 시정 성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지난 4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오로지 대구시에만 책임졌던 것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시켰고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놓았다”고 지적했다.

/ 최민지 기자

서울시, 내년에도 공공야간약국 이어간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주말·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

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해왔다. 현재 서울지역에 총 33곳이 있다.

앞서 지난 18일 시가 각 자치구에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

/ 박지환 기자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BUSAN 2024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02.16 - 25
BEXCO
BU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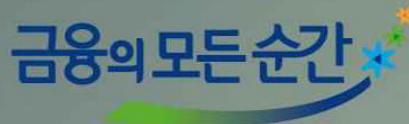
SAMSUNG

Galaxy S23 FE

FE를 갖는 세상에 없던 구매방식**perFEct 프로그램****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색상과 모델은 국가 또는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erFEct 프로그램] *혜택: KT 단말 약정 24개월 & 690이상 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 받고 기입 및 개통 시 단말기 대금 84만7천원 중 42만4천원 즉시 할인, 24개월 후 S23 FE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중 42만3천원 부분 납부(VAT 포함가 기준) *방법: KTShop에서 주문서 작성 시 'KT폰 구독' - '구독 2년형' 버튼에 체크
*자세한 사항은 KT.com 참조 *perFEct 베네핏은 정해진 기간내 Galaxy S23 FE를 신규 개통 후 쿠폰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개통: 2023년 12월 8일~2023년 12월 31일 · 신청 및 등록: 2023년 12월 11일~2024년 1월 31일 (개통 D+3일 후 신청 가능, 최초 통화일 기준) *perFEct 베네핏 각 혜택 별
쿠폰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봉과·스토레일' 성장지원팩: 2024년 1월 5일~2024년 6월 30일 · CU 크리스마스 디저트 교환권: 2023년 12월 11일~2024년 1월 31일 · CU 디저트 카테고리 50% 할인 쿠폰: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최초 등록하면 매월 사용 가능)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쿠폰 더운로드 문의: 삼성닷컴 프로모션 고객센터(1811-6043, 월~금 09~18시) 쿠폰 등록/사용 문의: 갤럭시 스토어(APP 내 문의) | CU 고객센터(1577-8007, 월~금 09~18시)



NH농협금융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탠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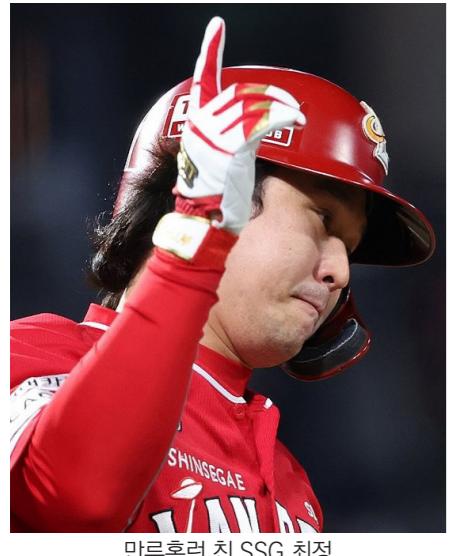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최정·손아섭·강민호·양현종…2024년 KBO '간판'이 바뀐다



만루홈런 친 SSG 최정

인 최정은 통산 458개의 홈런을 기록 중이다. 이 부문 1위는 현역 시절 '국민타자'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았던 '467홈런'의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이다.

최정은 홈런 10개만 추가하면 KBO리

통산 2천416안타를 기록 중인 손아섭은 2024년 89개의 안타만 더 때리면 KBO 리그 최다안타 타이틀을 차지한다.

손아섭 역시 2010년 이후 14시즌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친 '안타의 달인'이라

강민호는 체력 소모가 심한 포수 자리에서 쌓은 출장 기록이라 더욱 빛난다.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의 미국 메이저 리그(MLB)에서 강민호보다 많은 경기에 출전한 포수는 단 6명뿐이다.

'통산 458홈런' 최정, 새해 홈런 10개만 치면 이승엽 넘어 KBO 최다

손아섭은 최다 안타, 강민호는 최다 출장, 양현종은 최다 탈삼진 '정조준'

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라는 영광스러운 훈장을 가슴에 달게 된다.

KBO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타자인 최정은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떼쳤고, 올 시즌도 29홈런으로 리그 2위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변수가 없다면 전반기에 신기록 달성이 유력하다.

박용택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이 2020년 달성한, KBO리그 통산 최다인 '2천504안타'도 2024년에는 역대 2위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안타 187개를 때려 제2의 전성기를 연 손아섭(NC 다이노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데뷔해 올해까지 19시즌 동안

내년 시즌 충분히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다.

손아섭은 박용택의 '2504안타'를 넘어 KBO리그 최초의 3천 안타에 도전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꾸준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최다 출장 기록은 강민호(삼성 라이온즈)가 눈 앞에 떴다. 통산 2천233경기에 출전한 강

민호는 박용택이 보유한 KBO리그 최다 출장 기록 2천237경기에 고작 4경기만 뒤쳐질 뿐이다.

2024년에도 삼성 주전 포수 자리는 강민호가 지킬 전망이라 정규시즌 개막 후 일주일이면 새로운 기록이 탄생한다.

투수 중에서는 이미 수많은 대기록을 제조한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선배들의 위대한 기록에 다시 도전한다.

이번에는 통산 탈삼진이다.

올해까지 총 1천947개의 삼진을 잡은 양현종은 이 부문 최다 1위인 송진우의 2천48탈삼진에 101개 차로 접근했다.

양현종은 올해까지 9시즌 연속 세 자릿 수 탈삼진을 달성했다.

2024년 '10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 기록을 수립하면, 송진우가 지난 'KBO리그 최고 닉터 K' 타이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 최준용 기자



훈련 지도하는 클린스만 감독

클린스만호, 화기애애하게 몸만들기 시작

아시안컵 우승 도전

컨디션 조절·체력 단련 위주

별만 29일쯤 합류할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28일 용산 CGV에서 아시안컵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클린스만호 본진은 다음 달 2일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나 아부다비에서 현지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과 핵심 선수들은 아부다비에서 클린스만호에 합류,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대표팀은 1월 6일 아부다비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그간 아시안컵에서 중동 팀의 일격에 허무하게 탈락한 경험이 많은 한국이다. 이라크전은 중동의 '모래바람'에 대비한 '예방주사' 차원이다. 이라크는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조별리그 D조에 속했다. 한국을 '가상의 일본'으로 여기고 평가전에 나선다.

클린스만호는 10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조별리그에서 E조에 속한 한국은 2024년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바레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1월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 1월 25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대결한다.

한국은 1956년 흥룡에서 열린 첫 대회와 1960년 한국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 아시안컵을 2연패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0년 넘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준우승만 4회에 그치며 늘 자존심을 구겼다.

클린스만호는 10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조별리그에서 E조에 속한 한국은 2024년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바레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1월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 1월 25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대결한다.

한국은 1956년 흥룡에서 열린 첫 대회와 1960년 한국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 아시안컵을 2연패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0년 넘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준우승만 4회에 그치며 늘 자존심을 구겼다.

/ 황순길 기자

프로배구 후반기 레이스 시작…새해 벽두에 빅매치 집중

중반에 접어든 프로배구 4라운드가 27일 시작된다.

남녀부 선두로 반환점을 돈 우리카드와 현대건설은 각각 KB손해보험,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후반기 레이스의 첫발을 뗈다. 팀당 6경기씩 치르는 4라운드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이어진다.

프로배구는 2024년 1월 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올스타전 전후로 열흘을 쉬고 1월 30일 5라운드 일정을 재개한다.

각 팀은 꿀맛 같은 휴식을 앞두고 4라운드에 총력을 펴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끄는 두 팀은 나란히 4연승을 질주하는 삼성화재와 GS칼텍스다.

만년 최하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선두권 팀으로 발돋움한 삼성화재는 대한항공과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며 선두 우리카드를 추격 중이다.

여자부 3위 GS칼텍스도 최근 4경기에



우리카드, 5세트 접전 끝 승리

서 승점 12를 쓸어 닦는 무서운 상승곡선을 그리고 2위 흥국생명에 5점 차로 따라붙었다. 두 팀의 행보에 따라 선두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4라운드 주요 일정을 살피면,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우리카드(2024년 1월 5일), 대한항공-삼성화재(1월 16일), 삼성

화재-우리카드(1월 19일) 등 관심을 끄는 선두권 경기가 1월에 물렸다.

여자부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흥국생명-현대건설 라이벌 경기와 현대건설-GS칼텍스(1월 10일), GS칼텍스-흥국생명(1월 17일) 일정이 시선을 모은다.

/ 유현수 기자

성탄절에 V리그 데뷔전을 치른 첫 파킨스턴 출신 외국인 공격수 무라드 칸(대한항공)의 연착륙과 승리를 부르는 삼성화재의 파랑새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의 꾸준한 맹타는 4라운드를 달궜을 전망이다.

최태웅 감독 경질 후 중위권 도약에 사활을 건 현대캐피탈의 반등 가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관장을 5위로 밀어내고 여자부 4위로 올라선 IBK기업은행의 도전도 관심을 끌 만하다.

동료와 호흡이 같아루 맞아가면서 IBK기업은행 태국 출신 세티 폰푼 게드파르드(등록명 폰푼)의 평균 세트 성공은 한 라운드를 끝낼 때마다 평균 1씩 올라 현재 11.320을 찍었다.

또 원손 공격수 브리트니 아베크롬비(등록명 아베크롬비)의 공격도 날로 날카로워져 IBK기업은행은 둘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건다.

/ 유현수 기자

이번 국내 소집훈련에서는 조현우(울산), 송범근(肖南·벨마레·이상 골키퍼),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 김진수(전북), 이기제(수원), 김주성(서울·이상 수비수),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초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문선민, 박진섭(이상 전북), 이순민(광주·이상 미드필더), 조규성(미트윌란·공격수)이 '몸만들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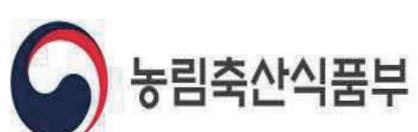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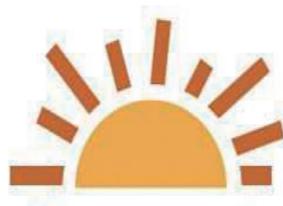
이 중 15명은 이날부터 훈련했고, 황인범은 이날부터 훈련했다.

/ 황순길 기자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아침밥'

균형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우리 쌀과 함께 하세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SAMSUNG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깨끗한 Air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